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박 기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세계 종자시장 규모

1.1. 시장규모 추이

종자산업은 농작물 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로 우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농작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농업부문의 원천산업이다. 과거에는 농업 규모가 크지 않아 자가채종 중심으로 종자 수급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세계적인 농기업화 진전으로 종자의 대량 구매가 요구되어 우량종자의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더욱이 종자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저장 방향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인해 농자재산업과 가공·유통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출, 신흥경제국의 도시화와 소득 향상에 따른 농작물 소비 증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 수급의 불안정 기조가 확대되고 있어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종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종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자가 막대한 부의 원천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종자산업에 의약 및 재료산업, 나노 기술 등이 접목되면서 종자산업은 최첨단 융복합산업으로 변모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은 상당한 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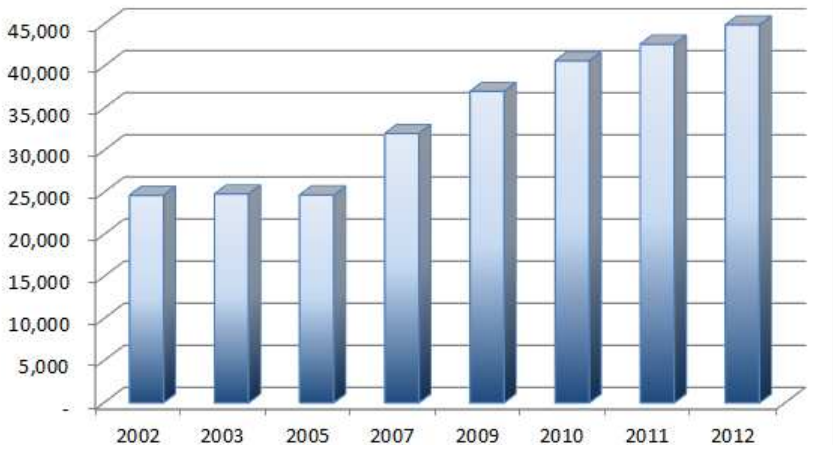
* (kihwan@krei.re.kr 02-3299-4331).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의 2011년 매출 총이익은 53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계 유수의 거대 글로벌 종자기업은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종자에 투자하고 있다. 몬산토의 경우 R&D 투자액만 2011년 1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종자시장 규모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종자산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세계 종자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02년 247억 달러에서 2005년까지 다소 정체하다가 이후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02년에 비해 82.1%나 증가한 449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세계 종자시장 규모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1.2. 국가별 비중 변화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으로 세계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북미(25.3%), 아시아·중동(25.0%), 남미(11.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중동 지역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는 이들 지역이 전체 시장의 29.3%를 차지하여 유럽(28.8%)과 비슷한 비중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아시아·중동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북미 지역이 크게 성장하여 아시아·중동과 북미가 전체의 63% 정도(2012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유럽	아시아/중동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계
2002	**8,350 (33.9)**	6,178 (25.0)	6,250 (25.3)	2,794 (11.3)	370 (1.5)	725 (2.9)	24,667 (100.0)
2005	7,103 (28.8)	**7,250 (29.3)**	6,250 (25.3)	3,970 (16.1)	490 (2.0)	643 (2.6)	24,706 (100.0)
2010	9,442 (23.2)	**13,725 (33.8)**	12,550 (30.9)	3,378 (8.3)	500 (1.2)	1,055 (2.6)	40,650 (100.0)
2012	10,780 (24.0)	**14,143 (31.5)**	**14,120 (31.4)**	4,393 (9.8)	500 (1.1)	989 (2.2)	44,925 (100.0)

주: ( ) 내는 계에 대한 권역별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국별 종자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계속 1~2위를 기록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위의 종자시장 규모를 유지하였던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시장규모가 감소하여 6~7위 국가로 전환되었다. 반면, 프랑스가 세계 3위로 부상되었으며, 브라질과 인도 등의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상위 5개국의 종자시장 규모는 2002년 148억 달러에서 2012년 295억 달러로 2배 내외 증가하여 이들 국가의 비중은 동년 59.1%에서 65.7%로 6.6%p 상승하였다.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 비중도 2002년 76.8%에서 2012년 79.6%로 높아져 특정 국가가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1~2위를 기록 중인 미국과 중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미국은 GMO 종자가 크게 확산되면서 종자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종 품종에서 교배종 품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종자시장 규모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2012년 종자시장 규모는 2000년 대비 2.1배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3.3배나 늘어 향후 세계 종자시장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브라질은 제초제 저항성 콩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로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고가의 해충저항성 옥수수와 면화 품종의 재배면적 증가로 종자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2012년에는 2000년보다 3.3배 신장되었다.[1)]

1) 신종수(2012), p.73.

표 2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2	국가	2005	국가	2010	국가	2012
1. 미국	5,700	1. 미국	5,700	1. 미국	12,000	1. 미국	12,000
2. 중국	3,000	2. 중국	3,000	2. 중국	9,500	2. 중국	9,950
3. 일본	2,500	3. 일본	2,500	3. 프랑스	2,400	3. 프랑스	2,800
4. 러시아	2,000	4. 프랑스	1,930	4. 브라질	2,000	4. 브라질	2,625
5. 프랑스	1,370	5. 브라질	1,500	5. 인도	2,000	5. 캐나다	2,120
상위 5개국 합계	**14,750 (59.1)**	**상위 5개국 합계**	**14,630 (59.2)**	**상위 5개국 합계**	**27,900 (68.6)**	**상위 5개국 합계**	**29,495 (65.7)**
6. 브라질	1,200	6. 독일	1,000	6. 일본	1,400	6. 인도	2,000
7. 독일	1,000	7. 인도	1,000	7. 독일	1,261	7. 일본	1,350
8. 아르헨티나	930	8. 아르헨티나	930	8. 이탈리아	780	8. 독일	1,170
9. 이탈리아	650	9. 이탈리아	780	9. 아르헨티나	600	9. 아르헨티나	990
10. 인도	600	10. 캐나다	550	10. 캐나다	550	10. 이탈리아	767
상위 10개국 합계	**18,950 (76.8)**	**상위 10개국 합계**	**18,890 (74.5)**	**상위 10개국 합계**	**32,491 (79.9)**	**상위 10개국 합계**	**44,925 (79.6)**
기타	5,717	기타	5,816	기타	8,159	기타	9,153
전체 계	24,667	전체 계	24,706	전체 계	40,650	전체 계	44,925

주: ( ) 내는 전체 세계 종자시장 규모에 대한 상위 10개국 합계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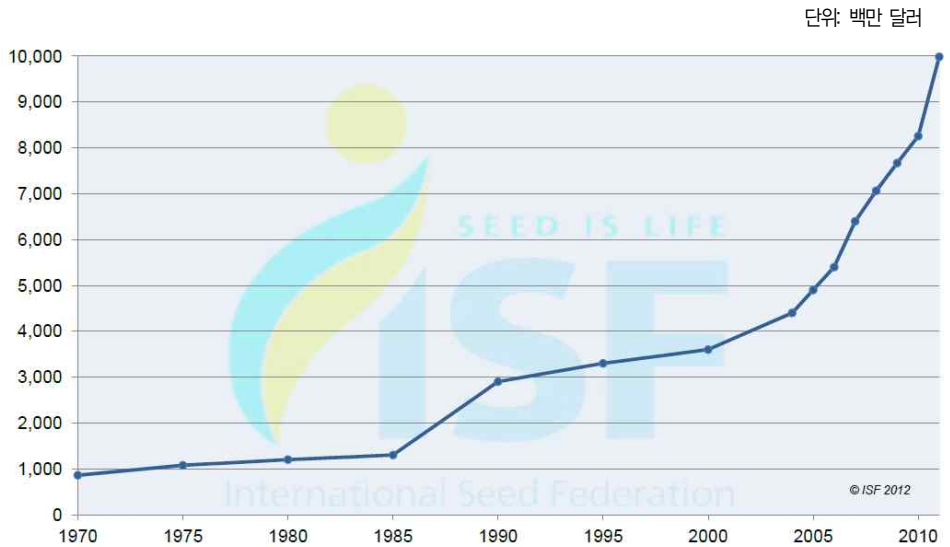
2. 세계 종자시장 교역 동향

2.1. 연도별 교역 추이

세계의 종자 교역 규모는 1970년 10억 달러 정도에 그치다가 2000년에는 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커다란 신장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의 경제성장으로 우량종자 수요가 증대되면서 교역은 급격히 늘어나 2010년 100억 달러 내외까지 급증하였다.

교역되는 종자의 품목은 2002년 곡물이 전체의 66.0%, 원예작물 34.0%의 비중이었으며, 2012년에도 곡물의 교역 비중은 64.4%로 큰 변화 없이 세계 종자의 교역은 곡물 종자 중심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같은 주요 곡물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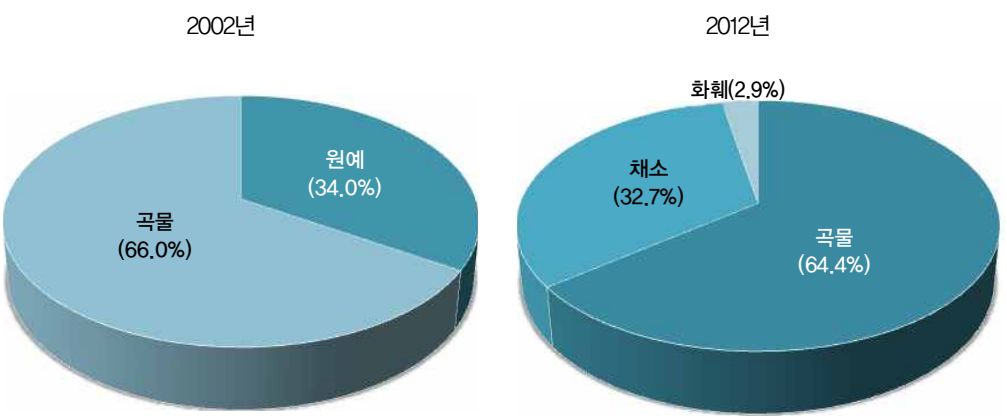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종자 교역 규모 추이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자는 국민의 먹을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여 보급하는 시스템이며, 채소종자는 완전 민간주도형 구조이다. 세계 교역 종자 가운데 채소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2.7%로 곡물종자에 비해서는 적지만, 상당량이 교역되고 있어 채소종자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세계 종자 품목별 교역 비중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2.2. 주요 국별 수출입 실적

2.2.1. 수출 동향

세계 종자 수출은 굴지의 글로벌 종자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미국, 독일과 함께[2] 전통적으로 육종 기술이 뛰어난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4개국은 연도에 따라 순위 변동은 있으나, 세계 종자 수출의 1~4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율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칠레, 헝가리, 캐나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국가도 종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 중에 있다.

표 3 주요 국가별 세계 종자 수출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3	국가	2005	국가	2010	국가	2012
네덜란드	1,100	미국	922	네덜란드	1,306	프랑스	1,804
미국	829	프랑스	688	미국	1,252	네덜란드	1,583
프랑스	679	네덜란드	684	프랑스	1,240	미국	1,531
독일	270	독일	340	독일	604	독일	727
상위 4개국 합계	2,878 (64.6)	상위 4개국 합계	2,634 (54.8)	상위 4개국 합계	4,402 (53.3)	상위 4개국 합계	5,645 (53.5)
카자흐스탄	201	캐나다	215	칠레	329	칠레	388
덴마크	170	덴마크	178	헝가리	253	헝가리	385
이탈리아	165	이탈리아	171	이탈리아	248	캐나다	323
칠레	139	칠레	171	덴마크	234	이탈리아	315
벨기에	93	벨기에	123	캐나다	208	덴마크	265
헝가리	78	멕시코	109	멕시코	185	**중국**	**251**
상위 10개국 합계	3,724 (83.6)	상위 10개국 합계	3,601 (75.0)	상위 10개국 합계	5,859 (71.0)	상위 10개국 합계	7,572 (71.8)
기타	732	기타	1,203	기타	2,397	기타	2,971
전체 합계	4,456	전체 합계	4,804	전체 합계	8,256	전체 합계	10,543

주: ( ) 내는 전체 세계 종자 수출 계에 대한 상위 10개국 합계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일본이 2003년 1억 2,200만 달러, 2009년 1억 7,000만 달러로 그동안 가장 많은 종자를 수출하였지만, 201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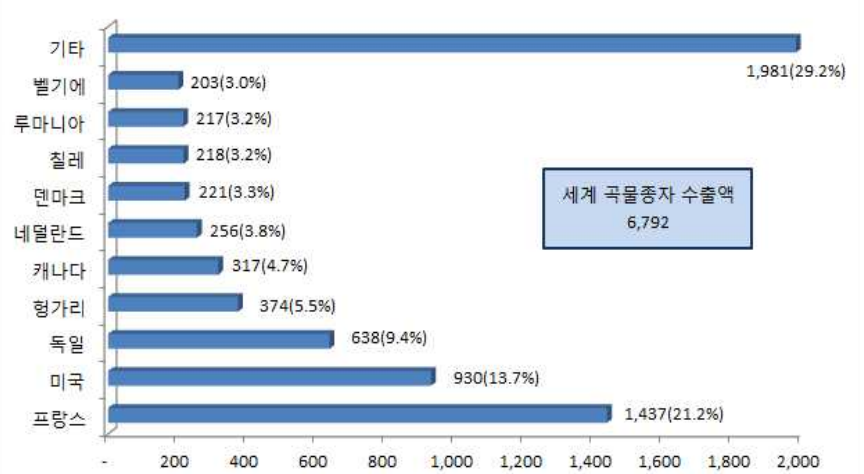
2) 세계 10대 종자기업에는 미국의 Monsanto, DuPont, Land O' Lakes, Dow AgroScience가 있으며, 프랑스의 Group Limagrain, 독일의 KWS AG와 Bayer Crop Science가 있다.

하였으며, 2012년에는 1억 4,500만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국의 경우 종자 수출 실적이 2005년까지 8,000만 달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수출액이 증가하여 2010년 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2억 5,100백 달러로 세계 10위의 종자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종자 교역의 중심인 곡물종자의 경우 2012년 68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중 프랑스가 전체의 21.2%인 14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13.7%인 9억 달러, 독일은 6억 달러로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캐나다가 각각 5.5%, 4.7% 등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미국, 독일 3개국의 곡물종자 수출 비중은 44.2%로 전체 종자수출의 3개국 비중 46.7%보다는 낮아 상대적으로 곡물종자는 비교적 여러 국가에서 수출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전체 종자수출국 가운데 1, 2위를 기록하는 국가이나, 곡물종자 수출은 전체의 3.8%인 3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세계 곡물종자 국별 수출 실적(201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 ) 내는 전체 세계 곡물종자 수출금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세계 채소종자의 교역 비중은 33% 정도로 곡물종자에 비해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소종자만이 유일한 완전민간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종자수출의 대부분은 채소종자이다. 세계 채소종자는 네덜란드가 36.4%인 13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최대 채

소종자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덜란드의 종자수출 비중이 3.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채소종자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원예작물 중심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이 미국 15.3%(5억 달러), 프랑스 10.1%(4억 달러) 등의 순으로 이들 3개국의 채소종자 수출 비중은 61.9%로 전체 종자수출 3개국 비중(46.7%)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세계 채소종자 수출은 특정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이 세계 10대 글로벌 종자기업 중의 하나인 Sakada가 있어 채소종자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2010년부터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2년 중국은 1억 5,800만 달러의 채소종자 수출로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반면, 일본은 9,100만 달러로 8위에 그쳤다. 한편, 곡물종자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이외에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채소종자의 경우 수출국은 네덜란드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중국,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등 아시아/중동 국가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5 세계 채소종자의 국별 수출 실적(201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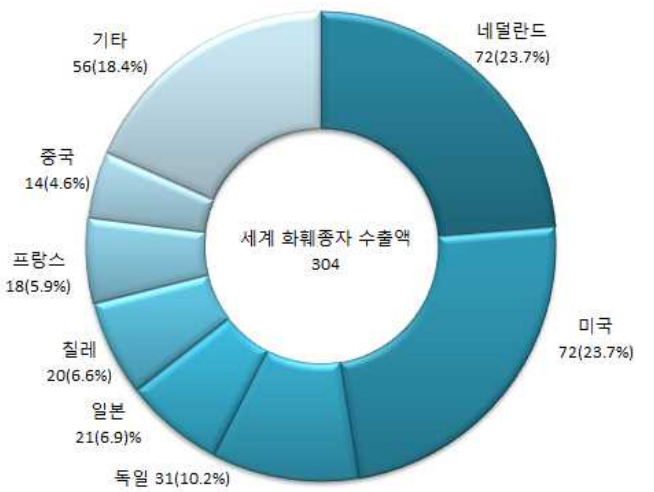
주: ( ) 내는 전체 세계 채소종자 수출금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화훼종자는 세계 종자 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하여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2012년 3억 달러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종자 수출은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의 점유율이 70.4%로 상당히

높아 선진국이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이며, 특히 세계 최대 화훼 강국인 네덜란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중국이 각각 6.6%, 4.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세계 화훼종자의 국별 수출 실적(01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 ) 내는 전체 세계 화훼종자 수출금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2.2.2. 수입 동향

세계 종자 수입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종자시장 규모가 큰 국가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 4개국의 경우 종자수출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여 세계 최대 종자수출국이자 수입국이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4개국의 종자 무역수지는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수출중심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종자 수입국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미국 다음으로 멕시코였으나, 이후 멕시코의 수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러시아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2012년 2억 6,800만 달러를 수입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억 5,100만 달러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대표적인 종자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4 종자 선진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2003	수출	829	270	679	1,100
	수입	457	311	391	295
	무역수지	372	△41	288	805
2012	수출	1,531	727	1,804	1,583
	수입	1,312	700	687	685
	무역수지	219	27	1,117	898

주: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상위 10개국의 종자 수입 비중은 2003년 69.3%에서 2005년 59.4%, 2012년 53.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자 수입이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영향으로 고품질 종자수입 증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주요 종자 수입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표 5 주요 국가별 세계 종자 수입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3	국가	2005	국가	2010	국가	2012
미국	457	미국	506	미국	787	미국	1,312
멕시코	442	멕시코	372	프랑스	616	독일	700
프랑스	391	프랑스	332	네덜란드	577	프랑스	687
이탈리아	335	네덜란드	329	독일	567	네덜란드	685
독일	311	스페인	305	멕시코	372	이탈리아	422
네덜란드	295	독일	301	이탈리아	358	스페인	374
스페인	211	이탈리아	271	영국	317	러시아	373
벨기에	150	캐나다	210	스페인	312	멕시코	355
캐나다	147	영국	134	러시아	287	영국	287
영국	124	벨기에	129	우크라이나	206	**중국**	**268**
상위 10개국 합계	3,724 (69.3)	상위 10개국 합계	3,601 (59.4)	상위 10개국 합계	4,399 (56.1)	상위 10개국 합계	5,163 (53.0)
기타	1,271	기타	1,974	기타	3,443	기타	4,586
전체 계	4,134	전체 계	4,863	전체 계	7,842	전체 계	9,749

주: ( ) 내는 전체 세계 종자 수입 계에 대한 상위 10개국 합계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3. 세계 종자시장 전망

3.1. 종자시장 전망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농업생산 및 식량 소비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전망에 의하면, 2013년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08년 대비 15.5% 증가할 것이며, 2014년은 21.3%, 2015년에는 2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종자시장은 부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로 인한 인종별 요구 차이 증대, 외식과 간편식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종자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7 세계 종자시장 발전 방향

자료: 이진만. 2013. "세계 채소종자 시장의 전망과 도전." 「GSP채소종자사업단 개소식 및 심포지엄 자료집」. GSP채소종자사업단.

3.2. 상업용 채소종자시장 전망

세계 종자시장은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특히 상업용 채소종자는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1년 46억 달러에서 2025년 133억 달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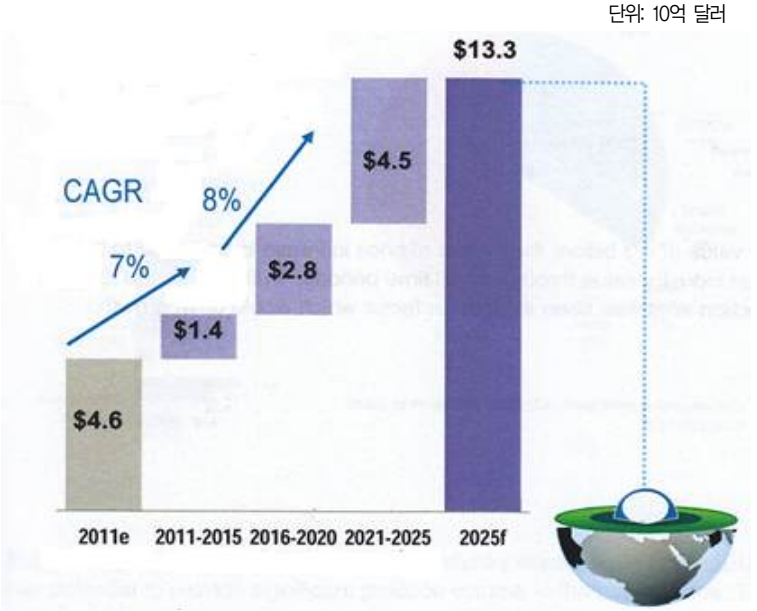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상업용 채소종자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종자를 저장하고 채취하던 기존 방식이 상업용 교배종(hybrid) 종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개도국 가운데 인도와 중국은 채소종자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와 소비지 주변 채소농지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배종 종자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자의 품질과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도 고도성장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우량종자의 사용이 확대되어 채소종자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진국의 경우 새롭고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종자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시설원예 확대를 야기 시키는데, 시설원예는 종자가격의 상승과 함께 우량종자가 요구된다. 신선 전처리 채소를 소비하는 트렌드로 인해 어린 채소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게 되며, 어린 채소는 일반 채소보다 파종량이 많게는 20배까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채소종자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세계 채소종자시장 전망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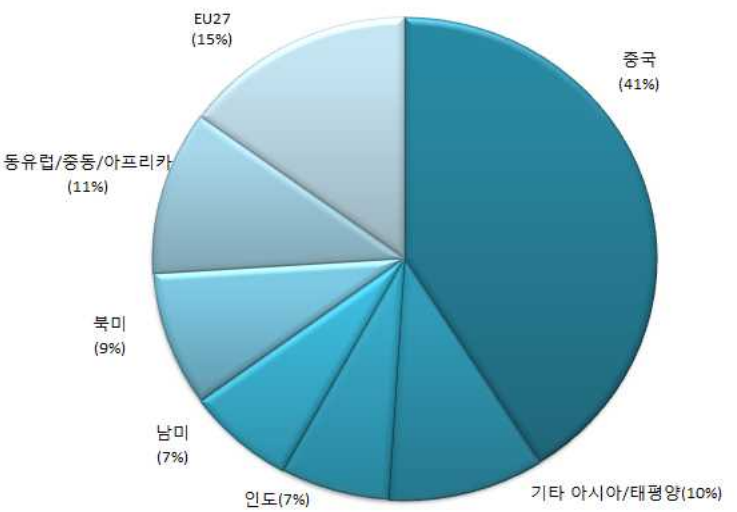


자료: CONTEXT (www.contextnet.com).

한편, 교배종 종자 가격은 연평균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와 EEMEA(동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 강력한 지역기반의 종자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가격 상승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종자 가격 상승은 상업용 세계 채소종자시장 규모가 확대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의 상업용 세계 채소종자시장 규모는 2011년에 비해 약 8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장 증가분의 41%는 중국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EU27이 15%, 동유럽・중동・아프리카(EEEA) 지역은 11%,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10%, 북미 9%, 남미와 인도가 7%를 차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상업용 채소종자시장의 확대는 59% 정도가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9 2011년 대비 2025년 상업용 세계 채소종자 시장 규모 증가분의 권역별 기여



자료: CONTEXT (www.contextnet.com).

4. 시사점

세계 종자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종자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는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종자 선진국

이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세계 10위 내에 아시아 3개국(중국, 인도, 일본)이 있어 유럽 중심의 종자시장 구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종자시장 규모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종자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입이 더 많은 종자 순수입국이며,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부상 중에 있다. 더욱이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향후에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장 확대의 상당부분은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농업은 시장개방 영향과 농가 고령화 등으로 위축되어 있고 종자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종자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보다 비싼 수출전략형 종자를 개발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사업을 2012년부터 총 4,91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우량종자의 육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종자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에 적합한 종자를 육종 후 수출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종자산업의 수출산업화 구축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박기환 외. 2010.「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방안」. P1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종수. 2012. “글로벌 종자 산업.”「세계농업」 제135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한국종자협회. 2011.「종자산업 시장 현황 조사 보고서」. (사)한국종자협회.

이진만. 2013. “세계 채소종자 시장의 전망과 도전.”「GSP채소종자사업단 개소식 및 심포지엄 자료집」. GSP채소종자사업단.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08.「SEEDS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CONTEXT (www.contextnet.com)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www.worldseed.org)